



이상 증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피더 Network 구축을 위해 한·중·일간의 피더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부정기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새로이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터미널에 대해서도 물량을 많이 처리 할수록 지원혜택이 증가하는 목표물량제 도입 등으로 운영사에서도 신규 물량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밝혔다.

한편, 금년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100%면제, 냉동·냉장창고, 화물차 기사휴게소 등 항만을 지원할 수 있는 Infra도 본격적으로 건립되는 등 정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광양항에 대하여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라 선사 및 운영사 지원금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이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광양항 현지 및 서울에서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앞으로 터미널 운영사를 비롯한 광양항 관련기관 및 업·단체에서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화물유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전망하고 있어, 광양항 자립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항만시설 부산항만공사에 대폭 이관

일반부두 등 국유재산 1조1017억원 출자

정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총 1조1017억원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를 통해 항만시설 소유권을 부산항만공사에 대폭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산항만공사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출자규모는 1차 출자금액 2조216억원을 포함, 총 3조1233억원으로 부산항 국유재산의 약 87%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출자에서 제외된 북항 제4부두와 5물양장 등 일부 국유재산도 현재 추진중인 부두순환도로개설공사가 완공(2006년 예정)되는대로 추

가로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부산항만공사 발족과 함께 1차로 신선대 컨테이너부두 등 4개 부두를 출자한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자성대컨테이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일반부두 등을 출자키로 함에 따라 부산항의 주요 핵심 시설 대부분을 부산항만공사에 출자하게 된다.

특히 부산 북항 일반부두의 경우 그동안 부산항만공사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반아 운영한 관계로 항만시설의 증·개축 등이 제한돼 왔으나 이번에 현물출자를 받게 돼 앞으로 북항재개발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출자를 계기로 부산항만공사는 관리·운영권에 상응한 시설소유권을 얻게 돼 명실상부한 부산항 관리권자로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실질적인 항만관리 운영 주체가 돼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와 항만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100만명 돌파

부관훼리 선박 등 13척 일본 5개항만 기항

올해로 개장 26년째를 맞고 있는 부산항의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수가 100만명 돌파 초입기에 들어갔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현재 집계된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수가 998천명으로 2004년 12월31일에는 연간이용객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78년 5월 신축될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일본 하관을 운항하는 부관훼리 선박 1척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하카다항을 운항하는 고속선 7척 등 총 13척의 여객선이 일본의 5개항(하카다, 시모노세키, 히로시마, 대마도, 오사카)과 부산항간을 운항 중에 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수는 2000년에

는 연간 53만명에 불과하였으나 5년 사이에 2배인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급속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외여행객의 저변화, 인접국인 일본에 대한 해외여행지로서의 높은 선호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공기의 절반가격으로 3시간 이내라는 짧은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쾌속선의 다수 투입이 이용객수 고속성장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올해는 KTX의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대로 진입하였고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늘어난 여가시간, 일본에 불어닥치고 있는 한류열풍 등의 영향도 이용객수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의 국제여객터미널이 축조 당시 수용인원 30만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로서 1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예산 25억원을 들여 터미널 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3월경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APEC행사 개최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하여 현재 동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이 진행중에 있다.

